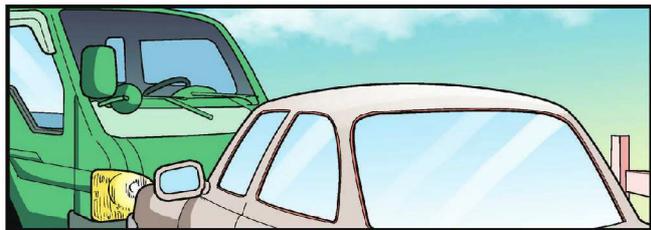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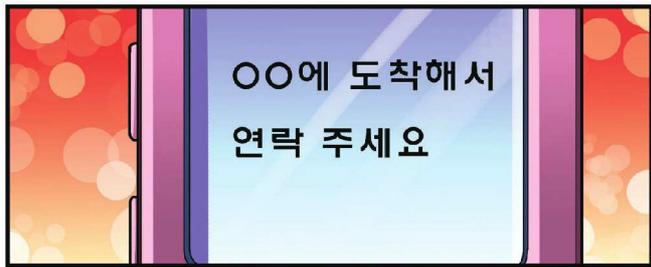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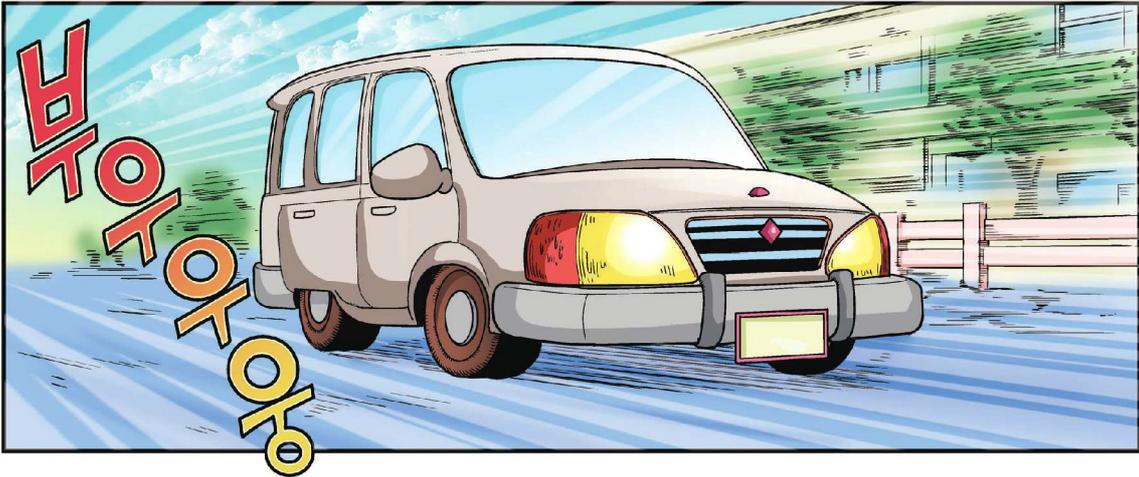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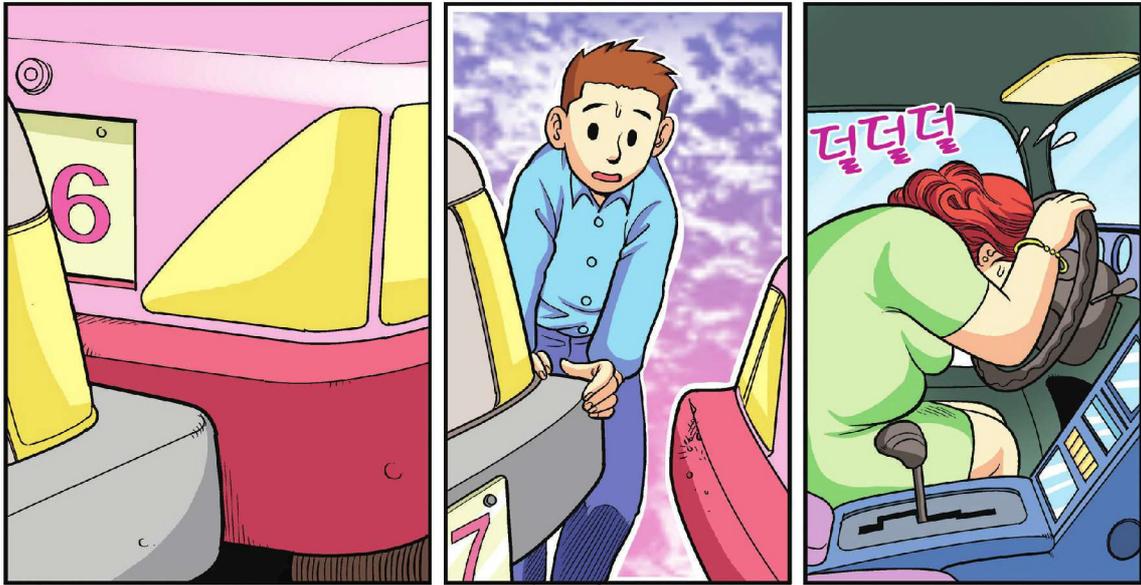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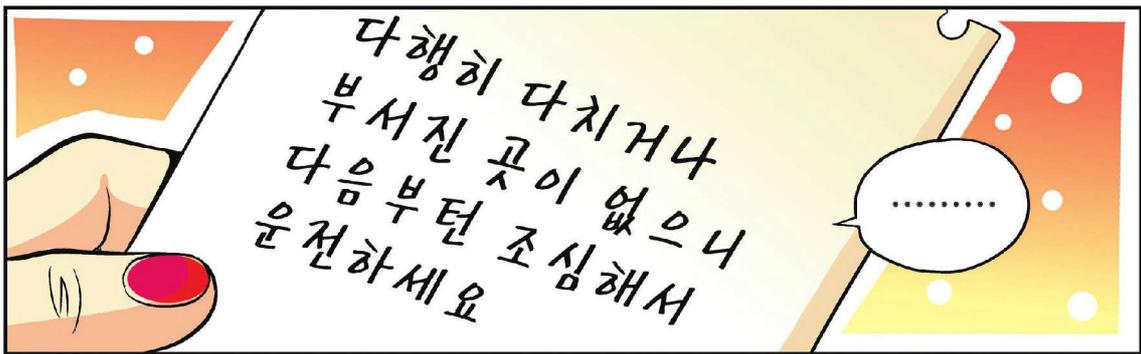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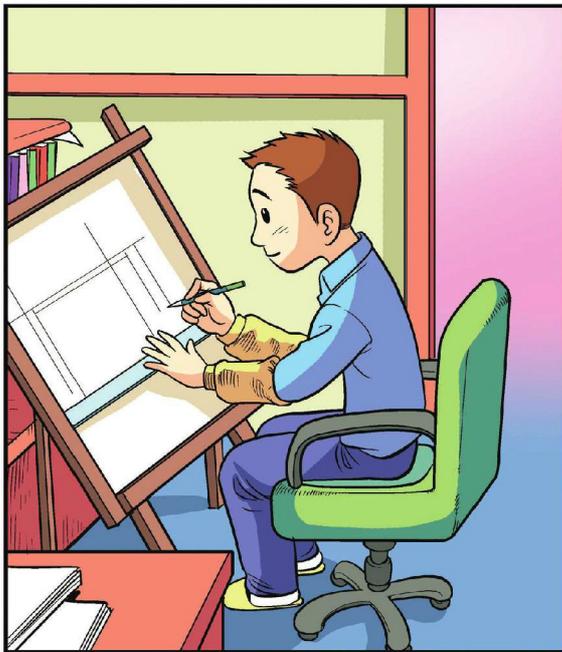
5. 진실은 언제나  
가까이에 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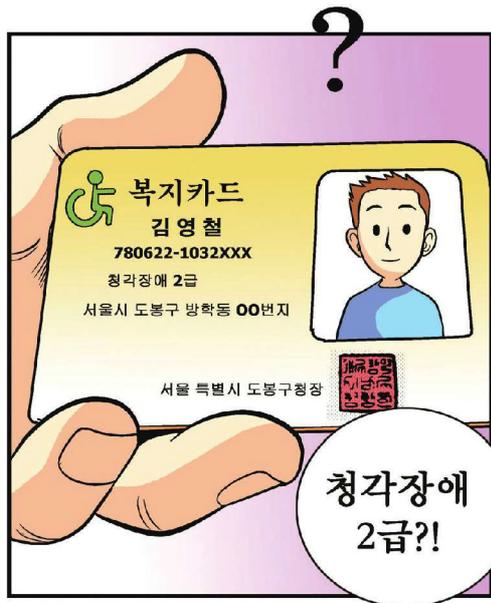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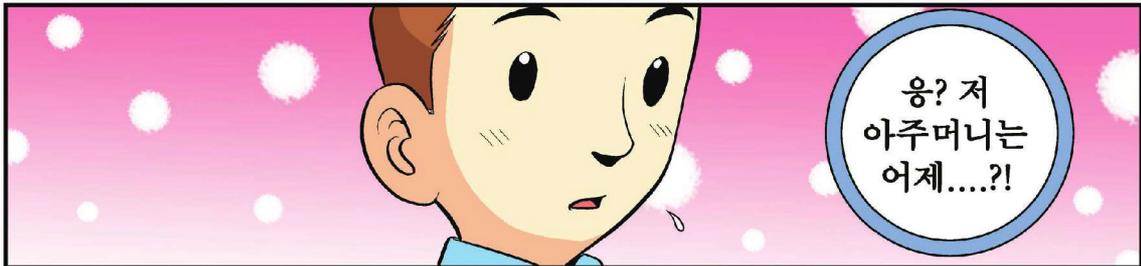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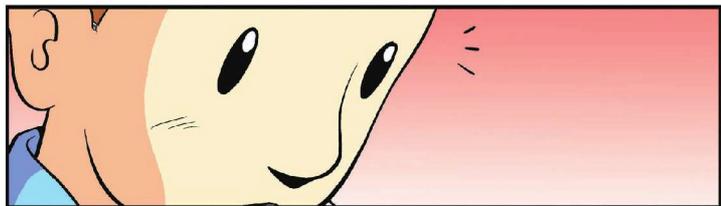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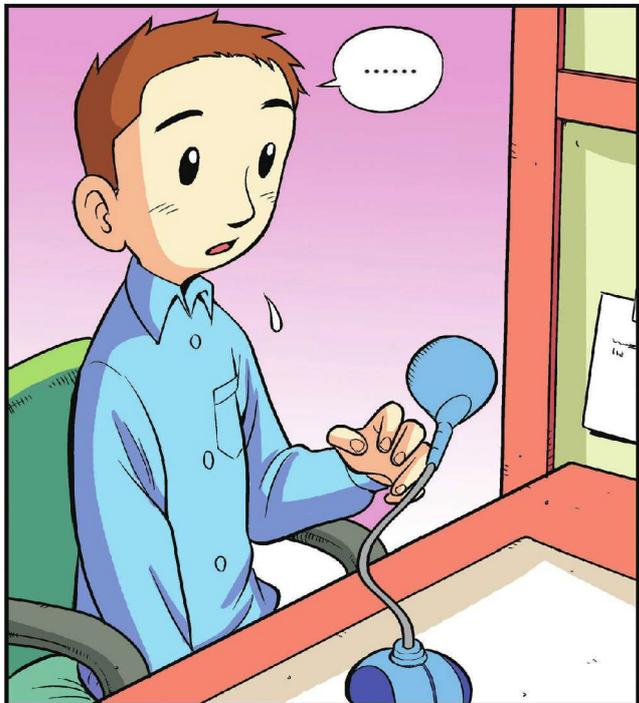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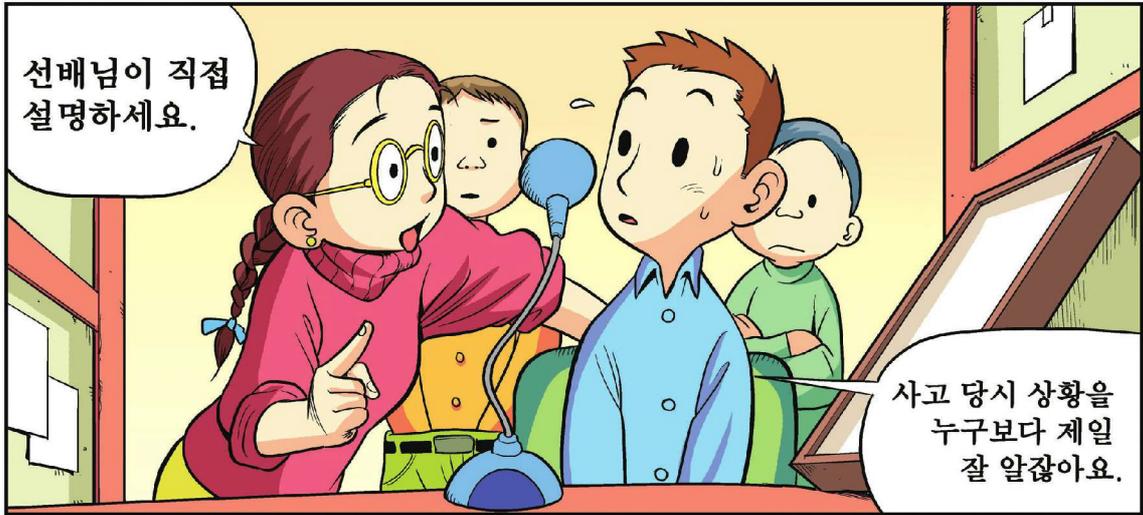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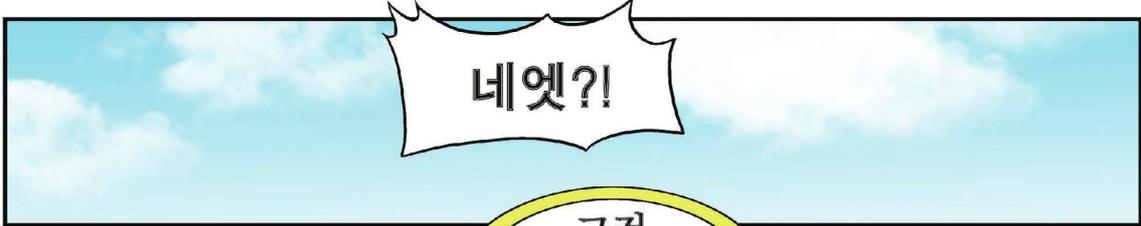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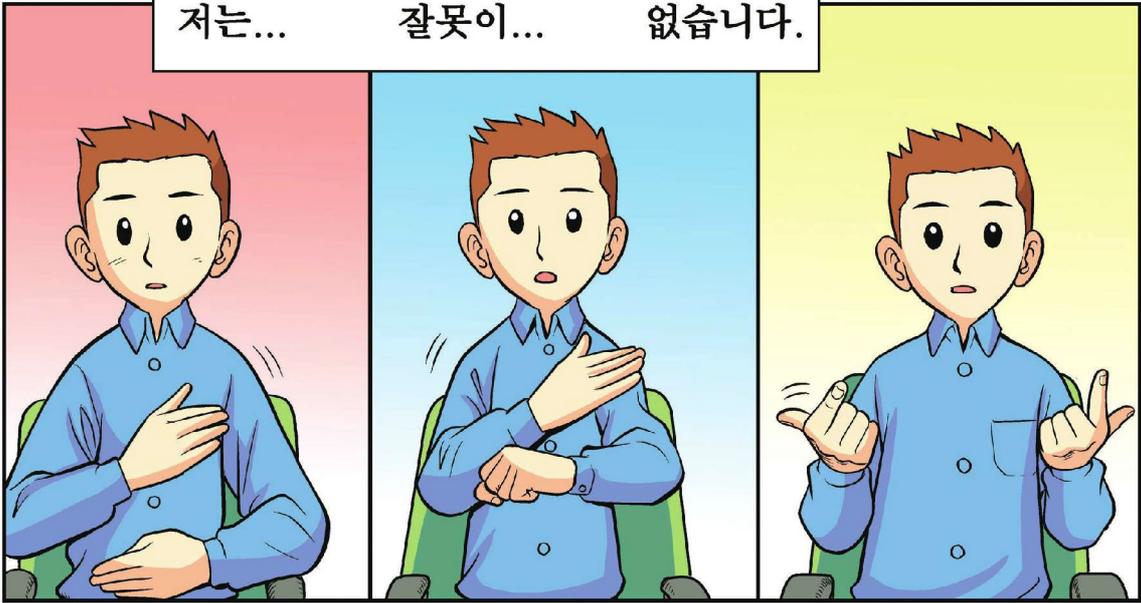








저는...      잘못이...      없습니다.



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어제는 경황이 없었습니다.



차분히 필담을 나눌 상황도 아니었고요.

하긴...



무조건 내 말이 맞아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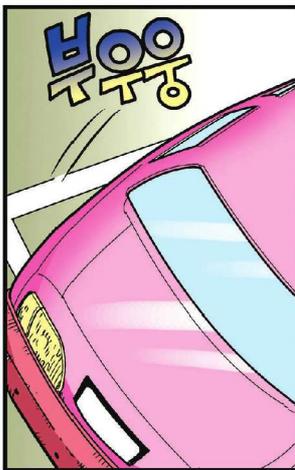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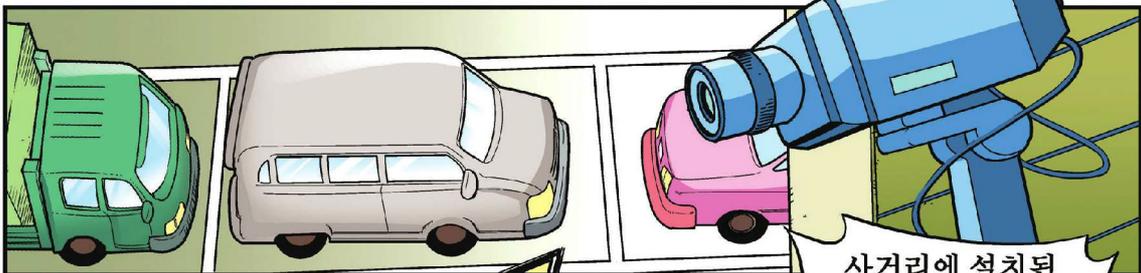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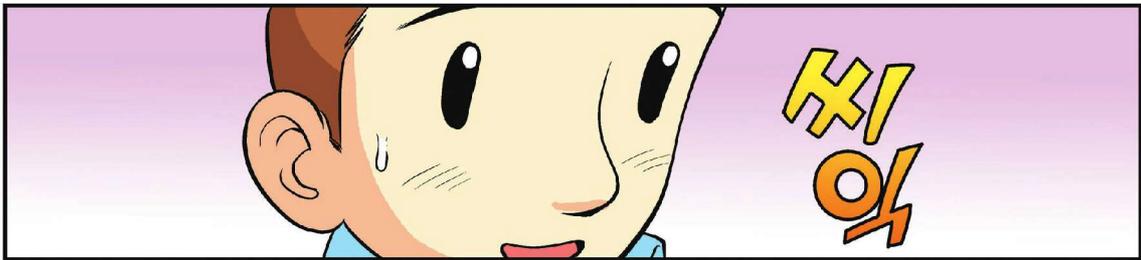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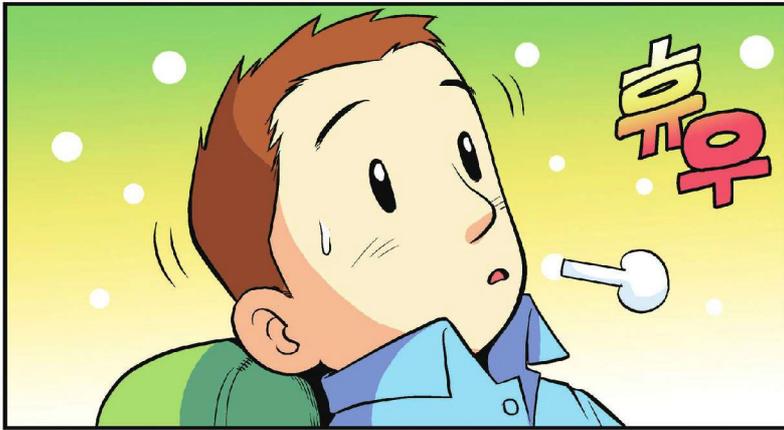
저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!!



혜영씨는 저걸 어떻게 알았어?

청각장애가 있는 사촌 언니가 사용하는 걸 봤어요.







차에 흠집 났다고 남편이 다그치기에 얼떨결에...

잘못했어요!  
제발 한번만 봐주세요! 네?



그렇다고 남한테 누명을 씌웁니까? 무고죄가 뭔지 아세요?



양쪽 주장을 잘 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.



통신중계서비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날 뻔했습니다.



피자 세 판 시키신 분~!!



피자 시킨 적 없는데??



진실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.

선배님이 시키신 거죠?

출출하던 참인데 잘 됐네. 하하

고미워셔..

그것을 알기까지가 어려울 뿐....!